

# 한의학과 문학의 교섭 양상 연구 -藥名詩를 중심으로-

이정현

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 A Study on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TKM and Literature : Centering on Medicinal Name Verses(*YakMyeongSi*)

Jeonghyeon Lee

Center for Medical History and Literatur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In this study, *YakMyeongSi* were considered to define relations of Tradional Korean Medicine(TKM) and literature. In the introduction, present related studies were searched to clarify *YakMyeongSi*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medical property songs(*YakSeongGa*). Related data about *YakMyeongSi* and *YakSeongGa* were extracted for the initial findings.

In chapter 2, medical name verse was defined as 'a type of free verses with one or more medical names in each verse to be interpreted ordinarily' based on records and examples of *YakMyeongSi*. In China, it originated from "*Book of Odes*" and "*Songs of Chu*", and it was most popular in the *Song-China*. Medical names actually referred to medical names in the early forms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but the complete form of *YakMyeongSi* started to appear in the *Tang-China*.

In chapter 3, 34 *YakMyeongSi* and 5 related data were suggested in tables as the present conditions of Korean *YakMyeongSi*. With actual examples, better comprehension of *YakMyeongSi* were intended. Also, the fact that Korean *YakMyeongSi* were completed in forms at the end of *Goryeo* and beginning of *Joseon dynasty*. The motivations of writing *YakMyeongSi* were also studied. Medical names were put into verses because they well expressed landscapes and emotions. Propagation of medical knowledge was the basis of *YakMyeongSi*.

There are limits in defining the relations of TKM and literature with some *YakMyeongSi*. More studies must be carried out on *YakMyeongSi* in various records with details and interests. Also, study to define general relations of TKM and literature must be carried out together by examining TKM in literary forms such as medical introductions or medical property songs and literature pieces that expressed principles and materials of TKM.

**Keywords :** *YakMyeongSi*, Tradional Korean Medicine(TKM), Literature, *YakSeongGa*

### I. 서 론

藥名詩는 약명을 삽입하여 지은 漢詩이다. 문학에 서는 잡체시로 분류되며, 대개는 일종의 언어유희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약명시는 독자적으로 연구되지 못하고, 인물연구나 한시 연구 중간에 1~2首정도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문학의 관점으로 조명되었기 때문에, 한의학과 의 관계를 찾아보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sup>1)</sup>

접수 ▶ 2010년 10월 29일    수정 ▶ 2010년 11월 21일    채택 ▶ 2010년 12월 1일  
교신저자 이정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83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Tel 042-868-9392    Fax 042-863-9463    E-mail rrrred@kiom.re.kr

1) 정민, 「석주 권필의 잡체시 연구」, 한양어문연구, 1986;4.  
권미숙, 「차좌일 시의 연구」, 숙명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정민, 『한시미학산책』, 서울:솔출판사, 1996.  
조태성, 「〈요로원야화기〉 소재 삽입시의 성격과 기능」, 한국 언어문학, 2007;61.  
정은진, 「표암 강세황 한시의 형식과 표현」, 동방한문학, 2008;37.

약명시가 문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의학과 문학의 관계를 밝혀 나가는 과정에서 빠뜨릴 수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한의학의 이론서들이 문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한의학과 문학이 관계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묻는다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약명시의 개념을 정리하고 실례를 소개하여 문학과 한의학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약명시는 약재명의 암기와 전혀 상관없지만 간혹 藥性歌와 비슷한 종류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한국의학사』에 있는 ‘陳郎中藥名詩는 당·송·원지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그 유래를 알기 어려우나, 약물에 관한 특색을 가진 것이 아니고 약명을 記誦에 편케 하기 위한 詩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일 것이다.’<sup>2)</sup>라는 기록 때문이다. 하지만 약명시는 약명의 기송과 상관없이 하나의 독립된 詩體이다.

약명시는 한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약재명만 시에 삽입하면 된다. 즉 문인들 누구나 쉽게 창작이 가능하다.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기록의 일부만 살펴봐도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약명시를 창작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고전명저총서 DB(<http://jisik.kiom.re.kr>),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넷 (<http://www.ugyo.net>),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http://yoksa.aks.ac.kr>), 서울대학교의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 등의 원문검색 도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약명시 34건, 관련기록 5건을 추출하였고, 그 결과는 3장에 표로 제시하였다.

검색으로 찾아낸 우리나라의 약명시는 단지 초기 연구를 위해 추출한 검색결과일 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논문이나 다른 자료<sup>3)</sup>에 간간히 보이기도 하고, 약명시를 모아 책으로 엮었다는 기록<sup>4)</sup>

2)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1981. p.152.  
 3) 정은진의 논문(표암 강세항 한시의 형식과 표현), 金侃의 약명시(유교넷) 등이 해당된다.  
 4) 강세항. 『표암유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p.356. “景遠以此卷 求海巖手書所作 海巖以腕鬼辭流翰 以近作藥名體三十首 要我書之 紙是藥精 墨磨松烟 揮此秃筆頭 不久當歸破古紙 只堪糊壁 作防風資耳 癸巳臘雪 豹菴病夫”  
 邊鍾基. 『澹溪遺稿』 권3. <石巖慎藥名詩序>. “日 鍾基過慎庵

으로 볼 때 약명시집의 발견 가능성도 열려있다. 향후 관심을 갖고 발굴한다면 더욱 많은 약명시가 발견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 II. 약명시의 정의와 변천

약명시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면 몇 가지가 있다. 우선 『藝文類聚』에서는 雜文部로 분류하고 있고,<sup>5)</sup> 『詩人玉屑』에서는 『漫叟詩話』를 인용하여 ‘약재명의 글자를 그대로 쓰지만, 뜻은 반드시 假借해야 한다.’<sup>6)</sup>라고 약명시를 설명하고 있다. 『滄浪詩話·詩體』에서는 雜體로 분류되며 언어유희일 뿐이라고 설명되어 있고,<sup>7)</sup> 『文體明辯』에서는 시에 여러 명칭을 삽입하는 雜名詩 중 한가지로 소개되어 있다.<sup>8)</sup> 아래의 예를 살펴보면 이해가 한결 쉽다. 밑줄 친 부분이 약명과 그 해석이다.

四海無遠志 / 드넓은 바닷물은 원대한 뜻 없어졌겠지만  
 一溪甘遂心<sup>9)</sup> / 한줄기 시냇물은 마음을 기꺼이 다잡는다

밑줄 친 ‘遠志’, ‘甘遂’라는 약명을 각각의 구절에 삽입했지만, ‘원대한 뜻’, ‘기꺼이 다잡는다’로 해석된다. 약명시에 관한 기록과 그 예를 종합해본다면, 약명시란 구절마다 약명을 넣되 일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잡체시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겠다.

약명시의 변천에 대하여 살펴보면, 先秦의 『詩經』과 『楚辭』에서 약명을 삽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魏晉의 『世說新語·排調』, 南朝의 <讀曲歌>, 唐代의 <伍子胥變文>에서 해음의 수법으로 약명을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 특히 당대에 星名·卦名·州名·數名 등을 삽입하여 지은 잡체시가 성행하면서, 비로소 약명시의 형태를

書舍 見主翁 與石叚古巖二翁 各作藥名詩三首 揭之壁上”  
 <<http://www.ugyo.net>>

5) 歐陽詢. 『藝文類聚』 권56(雜文部). 약명시 4수가 실려 있다.  
 6) 魏慶之 編. 『詩人玉屑』. 한국한시학회. 1974. p.15.(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嘗見近世作藥名詩, 或未工, 要當字則正用, 意須假借, 如日側柏陰斜, 是也. 若側身直上天門東, 風月前潮夜, 湖東二字, 即非正用『漫叟詩話』”  
 7) 嚴羽. 『滄浪詩話』. “詩體 : 字謎, 人名, 卦名, 數名, 藥名, 州名, 如此詩, 只成戲謔, 不足法也.”  
 8) 徐師曾. 『文體明辯』附錄 권2(雜數詩). 大阪書林. 1852(嘉永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雜名詩 : 按詩, 有用建除名者, ... (중략)... 有用藥草樹名者, ... (중략)... 古集所載, 僅見數端, 然推而廣之, 將不止此, 故錄之, 爲此篇.”  
 9) 『詩人玉屑』. p.14.

갖추게 되고, 宋代의 陳亞에 이르러 활발히 창작된다.<sup>10)</sup> 『靑箱雜記』 등에 의하면 진아는 재밌고 특이한 것을 좋아하여 약명시 100여수를 지었는데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sup>11)</sup> 현재 진아의 약명시는 남아있지 않아 그 전문을 볼 수 없지만, 조선왕조실록에 ‘陳郎中藥名詩’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까지 널리 읽혀졌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우선 약명시의 초기형태인 『詩經』과 『楚辭』의 한 부분을 살펴보겠다. 『시경』 중 周南 <采芣> 첫 구절과 『초사』의 대표격인 <離騷>의 한 부분이다.

『詩經』 周南 <采芣> 中  
采采芣苢 / 질경이를 뜯고 뜯어  
薄言采之 / 쉬지 않고 뜯고 있네  
采采芣苢 / 질경이를 뜯고 뜯네  
薄言有之 / 뜯어서 갖고 있네<sup>13)</sup>

<離騷> 中  
攬木根以結菡兮 / 목란 뿌리 잡고 구리때 묶고  
貫薜荔之落蕊 / 승검초에서 떨어지는 꽃술을 꿰었네  
矯菌桂以紉蕙兮 / 계수나무 들어서 난초를 엮고  
索胡繩之纒纒 / 가늘고 길게 호승을 꼬네<sup>14)</sup>

약명을 시에 삽입했지만 해석도 약명 그대로 하고 있다. 이 예와 같이 약명시의 초기형태는 약명을 그대로 지칭했으며 문학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 『시경』과 『초사』에 나타난 약명시의 초기형태는 東漢의 이합체를 거쳐 唐代에 비로소 완성형태의 약명시가 생기기 시작하며,<sup>15)</sup> 宋代의 陳亞에 이르러 성행하게 된다.<sup>16)</sup>

다음은 약명시로 유명한 진아가 지은 시의 한 부분이다.

風月前湖近 / 시원한 바람과 달 떠있는 호숫가에  
軒窓半夏涼<sup>17)</sup> / 창으로 들어오는 한여름의 시원함

밑줄 친 부분이 약재명이다. 『시경』과 『초사』의 경우 약명이 그대로 약명을 지칭하는 것에 비해 진아의 시는 약명을 삽입하되 일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약명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약명시는 일종의諧音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음이 같거나 비슷한 언어의 유희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운문이 발달한 중국에서는 약명시 뿐만 아니라 약명이 삽입된 詩·詞·駢文·曲·戲曲 등이 있고, 이들을 통틀어 약명문학이라 부르고 있다.<sup>18)</sup>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언어의 특성상 詞·駢文·曲·戲曲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시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약명문학도 약명시가 거의 대부분이다.

약명시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의 예를 살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 약명시의 현황과 실례를 살펴보겠다.

### Ⅲ. 우리나라 약명시의 양상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검색으로 추출한 우리나라의 약명시는 34건<sup>19)</sup>이며 관련기록은 5건으로, 고려말 鄭樞(1333-1382)에서부터 근현대 崔海鍾(1898-1961)에 이르기까지 30여명이 지은 약명시가 있다. 물론 실제로는 훨씬 많은 작품이 있다.<sup>20)</sup> 우리나라 역대 약명시의 작자와 시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

10) 歐天發. 「藥名文學之原理及其形式之發展」. 嘉南學報. 2005;31. pp.496-500.  
11) 吳處厚. 『靑箱雜記』. “滑稽之雄也 嘗著藥名詩 百餘首 行於世”  
12) 『태종실록』 卷24. 12年(1412年) 8月 7日(己未) 2번째기사 (한국고전종합DB)  
사관 김상직에게 명하여 충주사고의 서적을 가져다 바치게 하였는데, 『小兒巢氏病源候論』·『大廣益會玉篇』·『鬼谷子』·『五臟六腑圖』·『新彫保童秘要』·『廣濟方』·陳郎中 『藥名詩』·『神農本草圖』·『本草要括』·『五音指掌圖』·『廣韻』·『經典釋文』·『國語』·『爾雅』·『白虎通』·劉向 『說苑』·『山海經』·王叔和 『脈訣口義辯誤』·『前定錄』·『黃帝素問』·『武成王廟讚』·『兵要』·『前後漢著明論』·『桂苑筆耕』·『前漢書』·『後漢書』·『文粹』·『文選』·『高麗歷代事迹』·『新唐書』·『神祕集』·『冊府元龜』 등의 책이었다.(후략)  
13) 한국고전번역원. 『詩經』.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14) 황건. 이장우 외 역. 『고문진보 후집』. 을유문화사. 2003. p.37.  
15) 『詩人玉屑』. p.14. “藥名詩起自陳亞 非也 東漢已有離合體至唐始著藥名之號”

16) 歐天發. 「藥名文學之原理及其形式之發展」. 嘉南學報. 2005;31. p.500.  
17) 吳處厚. 『靑箱雜記』 卷1.  
18) 歐天發. 「藥名文學之原理及其形式之發展」. 嘉南學報. 2005;31. p.493.  
19) 같은 주제로 묶인 일련의 시들은 1건으로 처리  
20) 강세황의 『표암유고』 <書藥名詩後>에 景遠이라는 사람이 약명시 30수를 지어 표암이 글씨를 썼다는 기록이 있고, 변중기의 『澹溪遺稿』 <砥巖慎藥名詩序>에 慎庵, 石砥, 古巖 3인이 약명시 3수씩 지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현재 발견되지 않았다.(각주 4번 참조) 이 외에도 많은 약명시가 지어졌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Table 1〉 우리나라 역대 약명시

	작자	생몰년	제목	출전	비고
1	鄭樞	1333 - 1382	用藥名 憶南村	『圓齋藁』	
2			太宗24卷,12年(1412壬辰/명영락(永樂)10年)8月7日(己未)2번째기사 사관김상직에게중주사고의책을바치도록명하다	『太宗實錄』	관련기록
3	金時習	1435 - 1493	勸退休	『梅月堂集』	
4	朴祥	1474 - 1530	藥名體 遺張檢詳玉子剛父	『訥齋集』	
5	金安老	1481 - 1537	藥名詩 效古人體	『希樂堂稿』	
6	林億齡	1496 - 1568	秋村雜題	『石川詩集』	
7	權鐸	1569 - 1612	余以製述官 久留京邸 友人多言大病之餘 不宜馳驅遠道 偶閱小方 有藥名曰人言者 因戲賦一絕	『石洲集』	
8			唐詩	『芝峯類說』	관련기록
9	李晬光	1563 - 1628	宋詩		
10	申欽	1566 - 1628	贈清陰 8首 중 其6	『象村稿』	
11	郭說	1548 - 1630	效藥名詩 6首	『西浦集』	
12	吳翻	1592 - 1634	春日集藥名	『天坡集』	
13	張維	1587 - 1638	藥名離合詩效張文昌	『谿谷集』	
14	鄭弘溟	1582 - 1650	病中戲效藥名體	『畸庵集』	
15	愼天翊	1592 - 1661	謝林東野送天門冬酒 用藥名作	『素隱遺稿』	
16			效秋潭藥名體題彌陀寺仍述客懷二十二韻	『壺谷集』	
17	南龍翼	1628 - 1692	次赤谷用藥名體排律韻 變作回文體		
18			效藥名體二十韻排律 答寄赤谷		
19	朴泰漢	1664 - 1697	藥名詩	『朴正字遺稿』	
20	李世白	1635 - 1703	藥名體	『雲沙集』	
21	趙泰億	1675 - 1728	藥名體三首 示諸友索和	『謙齋集』	
22			藥名體寄別江原監司柳君休	『希菴集』	
23	蔡彭胤	1669 - 1731	藥名體 送江陵李使君伯起		
24			藥名體 寄謝江原監司李令 眞淳		
25	朴斗世	1650 - 1733	要路院夜話記 插入詩	『要路院夜話記』	
26	李衡祥	1653 - 1733	藥名	『瓶窩全書』	
27	金侃	1653 - 1735	藥名排悶五首	『竹峯集』	
28			和副使藥名體	『陶谷集』	
29	李宜顯	1669 - 1745	又用藥名體		
30	李令翊	1738 - 1780	奉和凡谷藥名詩見寄韻	『信齋集』	
31	姜世晃	1712 - 1791	書藥名詩後	『豹菴遺稿』	관련기록
32	車佐一	1753 - 1809	藥名體 二首	『四名子詩集』	
33	李學達	1770 - 1835	夏夜藥名	『洛下生集』	
34	朴時源	1764 - 1842	和鄭擘明藥名體	『逸圃集』	
35			次韻藥名俳體 仍謝公溥 兼簡國卿 繼以自嘲 壬辰	『侁宇集』	
36	郭鍾錫	1846 - 1919	既次公溥藥名俳體 更賦二頁 分寄權繼若 有淵, 洪時應 洛鍾 兩君		
37	金允植	1835 - 1922	和李我石雜體詩	『雲養集』	
38	邊鍾基	1854 - 1937	砥巖慎藥名詩序	『澹溪遺稿』	관련기록
39	崔海鍾	1898 - 1961	病中 訪桐華寺藥泉 而旅館以悶 戲作藥名詩	『韶庭詩稿』	

\* 같은 주제로 묶인 일련의 시들은 1건으로 처리

고문헌 열람의 어려움과 검색의 한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약명시가 언제부터 지어졌는지 추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현재 검색된 자료만 보더라도 늦어도 14세기 여말선초에는 약명시가 지어지고 있음은 확실하다. 우리나라 약명시 중 몇가지 실례를 살펴보겠다.

다음은 고려 후기 문신인 鄭樞(1333-1382)의 『圓齋稟』에 실린 약명시이다.

〈用藥名憶南村〉 / 〈남촌을 회상하며〉  
 半夏前湖上 / 한여름 호수가 앞에 서니  
 泉甘草木香 / 시원한 물과 향긋한 풀내음  
 當歸無別意 / 귀향에 별다른 뜻 없었지만  
 遠志可全忘<sup>21)</sup> / 원대한 꿈 모두 잊을만했지

〈用藥名憶南村〉는 14세기에 완성된 형태의 약명시가 우리나라에 있었음을 증명해준다. ‘반하’, ‘전호’, ‘감초’, ‘목향’, ‘당귀’, ‘원지’ 6가지 약재명을 구절마다 삽입했지만 해석은 글자대로 하고 있다. 약재명을 삽입하면서도 시상의 전개가 물 흐르듯 아주 자유롭다.

도가와 양생에 관심이 많았던 金時習(1435-1493)의 『梅月堂集』에도 그가 지은 약명시가 전한다.

〈勸退休〉 / 〈물러나서 쉬자〉  
 丈夫有遠志 / 사나이 큰 꿈이 있어도  
 歲晏行當歸 / 해 저물면 마땅히 돌아오리  
 松老伏蒼長 / 늙어가는 소나무에 복령 자라고  
 秋深山芋肥 / 깊어가는 가을에 마는 살찌네  
 宦情薑桂辣 / 벼슬살이는 생강과 육계처럼 맵고  
 世路汞鉛遠 / 세상일은 수은과 납처럼 어긋난다  
 措大苦曾歷 / 큰 괴로움을 이미 겪었으니  
 早休忘是非<sup>22)</sup> / 일찍 그만두고 시비를 잊어버리리라

‘원지’, ‘당귀’ 등의 약재명을 삽입했다. ‘복령’과 ‘강계’는 약재를 그대로 가리키는 동시에 약재의 특성과 관계지어 중의적인 의미를 내재한 점이 특이하다. ‘복령’은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균류이며, 권력에 ‘기생’하는 간신들을 은근히 빗대고 있다. 맛이 맵다는 특징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강직해지는 성품을 ‘강계가 매워진다’고 비유하기도 하는데,<sup>23)</sup> 작자의 심정을

‘강계’에 빗대어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시에서는 종종 시를 짓게 된 동기를 제목으로 쓰기도 한다. 조선중기 문인인 權輶(1569-1612)의 약명시 제목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눈길을 끈다.

〈余以製述官 久留京邸 友人多言大病之餘 不宜馳驅遠道 偶閱小方 有藥名曰人言者 因戲賦一絕〉 / 〈내가 제술관으로서 오래 京邸(현재의 출장소와 비슷한 개념)에 머물렀는데 벗들이 누차 말하기를 “큰 병을 앓은 뒤에 말을 타고 먼 길을 달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하였다. 그런데 우연히 小方을 보다보니 人言이란 이름의 약이 있기에 장난삼아 절구 한 수를 짓다.〉  
 半夏留京口 / 한여름 서울에 머무니  
 人言病未蘇 / 병 아직 안 나았다 말들을 하네.  
 只當歸故里 / 다만 마땅히 고향으로 돌아가  
 煙月釣前湖 / 안개 달빛 앞 호수서 낚시질 하리.<sup>24)</sup>

‘반하’, ‘인언’, ‘당귀’, ‘전호’의 약재명을 사용했다. 비상은 信石이라고도 하는데, 다시 ‘信’을 破字하여 人言이라고 하기도 한다. 벗들이 누차 말한다는 뜻(友人多言)과 인언(人言)이 글자가 같아 장난삼아 지은 약명시라는 제목이다. 시를 짓게 된 경위를 제목에 쓰면서 ‘장난삼아 짓다(戲賦)’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동기라기보다는 말장난 하듯이 약명을 삽입해 지었다는 말이다.

약명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약명을 삽입한 시다. 작시에 워낙 능숙한 당시 문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시를 분석해보면 사실 쉬운 일도 아니다. 약재명을 넣으면서도 시의 전개가 자연스러워야 하고, 글자 위치에 따라 평측도 맞춰야 하며, 구절의 끝글자로 사용할 경우에는 운자까지 맞춰야 한다. 위 시는 ‘장난삼아 지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작시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있다.

그런가하면 시인들이 서로의 재능을 겨루기 위해 약명시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 조선중기의 문신인 朴斗世(1650-1733)가 지은 『要路院夜話記』 중간에 있는 약명시가 그 경우다. 주인공과 객이 서로 재주를 자랑하다가 결국에 짓기 어려운 글귀로 겨루자고 하며 약명시를 주고받는다.

21) 鄭樞. 『圓齋稟』. 한국문집총간 005. 민족문화추진회. p.203.

22) 金時習. 『梅月堂詩集』. 한국문집총간 013. 민족문화추진회. p.322.

23) 『宋史』 권381. “敦復曰 吾終不為身計誤國家 況吾薑桂之性到老愈辣”

24) 權輶. 『石洲集』 권8. 한국문집총간 075. 민족문화추진회. p.80. 정민. 『한시미학산책』. 서울:솔출판사. 1996. p.300.

前胡昏謬隨君謀 / 이전에 왜 어리석게도 그대의 꾀에  
빠졌던가

遠志誠非淺見夫<sup>25)</sup> / 큰 꿈은 진실로 얕은 식견으로는  
불가능하다

‘전호’와 ‘원지’를 구절에 넣어 객이 말한다. 그러자  
주인공은 ‘익지’와 ‘당귀’를 넣어 대답한다.

大用終來須益智 / 크게 쓰이려면 모름지기 지혜를  
더해야하니

且當歸去讀陰符<sup>26)</sup> / 장차 돌아가서 음부편(병법서)을  
읽으리

약명을 삽입하면서도 서로에게 하고싶은 말을 두  
구절로 압축하여 표현한다. 이후 주인공과 객은 약명시  
로도 결판이 나지 않는다며 다른 종류의 시로 다시  
대결한다. 약명시가 시인의 재능을 비교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음을 통해, 약명시를 짓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히 약명을 삽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보다 더한 제약이 있는 약명시도 있다. 다음은 조선  
중기의 문장가인 張維(1587-1638)의 <藥名離合詩  
效張文昌>이다. 離合詩는 글자를 떼어서 합치면 의미가  
나오는 일종의 퍼즐같은 시다.

<藥名離合詩 效張文昌> / <장문장을 흉내내어 지어 본  
약명의 이합시>

垂翅青冥分自甘 / 하늘 내려와 접은 날개 내 분수로 감수할 일  
遂令留滯老周南 / 마침내 주남 땅 퍼질러앉게 되었구나  
天文古劍秋蓮滑 / 天文에 응할 옛 칼 연꽃무늬 반들반들  
石匣千年紫氣含 / 돌궤 속에 천 년토록 자기 머금고 있으리라  
早將詞賦入銅龍 / 일찌감치 사부 지어 銅龍門에 들어서서  
眼底無人四海空 / 眼中無人이라 사해가 텅 비었는데  
靑瑣十年違視草 / 청쇄 출입 십 년 세월 視草臺 물러난 몸  
烏頭今作白頭翁 / 까마귀 머리가 이제는 백발이 다 되었구나<sup>27)</sup>

이 이합시는 구절의 끝글자와 다음 구절의 첫글자를  
붙이면 하나의 약명이 나온다. 1구의 끝글자 ‘甘’과  
2구의 첫글자 ‘遂’를 합치면 ‘甘遂’라는 약명이 나온다.  
떼어서[離] 합치면[合] 작가가 의도한 글자가 나온다고  
해서 이합시라고 한다. 같은 방식으로 ‘남성’, ‘활석’,

25) 박두세. 『요로원야화기』. 을유문화사. 1953. p.36

26) 같은 책. p.37

27) 張維. 『谿谷集』. 한국문집총간 092. 민족문화추진회. p.557.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용안’, ‘공청’, ‘초오’, ‘백두옹’을 추출할 수 있다. 까다  
로운 한시의 조건에 맞추고 약명을 살짝 숨겨놓으면  
서도 시상을 자유자재로 펼치는 시인의 재능을 짐작할  
수 있다.

약명시에 삽입된 약명을 살펴보면 빈도수가 높은  
것들이 있다. <Table 1>의 약명시에 사용된 약명을  
대상으로 사용빈도를 살펴보았다.<Table 2>

<Table 2> 약명의 사용빈도

약명	빈도	약명	빈도
當歸	13	甘草	3
遠志	10	空青	3
防風	8	燈心	3
白頭翁	7	薄荷	3
南星	6	山藥	3
半夏	5	人言	3
續斷	5	地黃	3
益智	5	天門冬	3
甘遂	4	破古紙	3
木通	4	厚朴	3

34건의 약명시 중 3회 이상 사용된 약명을 추출한  
결과 경치나 정서를 일반적으로 표현하기에 편리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약명시가 가지는  
특수성은 약명 자체에 기인한 것이다. 약명은 은어를  
쓰기 좋아하고, 이명과 얽힌 이야기가 매우 많으며,  
무엇보다도 경치와 정서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sup>28)</sup> 이런 특성 때문에 시의 한 부분  
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약명시가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약명시를 짓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약명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의학지식이 널리 보급되었다는  
증거는 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권필은  
‘小方’에 적힌 인언이라는 약재를 보고 시를 지었다.  
실제로 향약관련 서적들이 14세기 무렵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sup>29)</sup> 1613년 『동의보감』이 간행되면서  
의학지식의 보급은 급물살을 탔다고 할 수 있다.

28) 歐天發. 『藥名文學之原理及其形式之發展』. 嘉南學報. 2005:31.  
pp.493-6.

29) 현존하지는 않지만 고려의 『향약고방』, 『동인경험방』, 『향약  
구급방』, 『삼화자향약방』, 『향약혜민경험방』이 있었고, 조선  
전기 『향약간이방』, 1389년 『진맥도결』, 1398년 『향약제생  
집성방』, 1431년 『향약채취월령』, 1433년 『향약집성방』,  
1477년 『의방유취』 등이 간행되었다.  
맹용재 외. 『한의학통사』. 대성의학사. 2006. pp.150-160,  
194-211.

약명시는 경치나 정서를 일반적으로 표현하기에 적당한 약명의 특성과 의학지식이 널리 보급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諧音이라는 한시의 수법이 결합된 하나의 자연스런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 IV. 결 어

한의학과 문학의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한 시도로 약명시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론에서는 관련 연구의 현황을 알아 본 후, 약명시는 약재의 효능과 성질 등을 암기하기 위한 약성가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초기연구를 위해 약명시와 관련기록을 추출했음을 명시했다.

2장에서는 약명시에 관한 기록과 예를 통해서 약명시란 ‘구절마다 약명을 넣되 일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잡체시의 한 종류’라고 정의를 내리고, 중국에서는 『시경』과 『초사』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宋代의 陳亞에 이르러 성행했음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선진의 초기 형태에서는 약명이 그대로 약명을 지칭했지만 당·송대에 이르러 완성형태의 약명시가 존재했음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 역대 약명시의 대표적인 사례를 조사하여 약명시 34건, 관련기록 5건을 표로 제시했으며, 실례를 통해 약명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또한 우리나라 약명시가 늦어도 여말선초에는 이미 완성형태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고, 약명시를 짓게 된 동기를 살펴보았다. 약명이 경치와 정서를 표현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시에 삽입되었고, 그 바탕에는 경치나 정서를 표현하기 적합하다는 약명의 특성과 의학지식의 보급이 있었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한의학과 문학의 교섭 양상은 각각의 성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몇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①약명시처럼 문학에서 한의학적 소재를 택한 경우가 있고, ②『의학입문』이나 『제중신편·약성가』처럼 한의학의 전문지식이 문학적 형식을 갖춘 경우<sup>30)</sup>가 있다. ③또한 한의학의 원리·소재와 문학적 표현이 조화를 이룬 작품<sup>31)</sup>의 경우도 있다. 약간의 약명시 연구만으로

한의학과 문학의 교섭 양상을 규명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 기록에 산재된 약명시들을 모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의학과 문학의 총체적인 교섭 양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나머지 2가지 경우에 관한 연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太宗實錄』 卷24.(국사편찬위원회)
2. 『宋史』 卷381.
3. 權輿. 『石洲集』 卷8. 한국문집총간 075. 민족문화추진회.
4. 歐陽詢. 『藝文類聚』.
5. 金時習. 『梅月堂詩集』. 한국문집총간 013. 민족문화추진회.
6. 邊鍾基. 『澹溪遺稿』.(유고넷)
7. 徐師曾. 『文體明辯』. 大阪書林. 1852(嘉永5).(국립중앙도서관 소장)
8. 吳處厚. 『青箱雜記』.
9. 魏慶之 編. 『詩人玉屑』. 한국한시협회. 1974.(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0. 嚴羽. 『滄浪詩話』.
11. 張維. 『谿谷集』. 한국문집총간 092. 민족문화추진회.
12. 鄭樞. 『圓齋彙』. 한국문집총간 005. 민족문화추진회.
13. 姜世晃. 『豹菴遺稿』.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14.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1981.
15. 맹용재 외. 『한의학통사』. 대성의학사. 2006.
16. 朴斗世. 『要路院夜話記』. 을유문화사. 1953.
17. 정민. 『한시미학산책』. 서울:솔출판사. 1996.
18. 황건. 이장우 외 역. 『고문진보 후집』. 을유문화사. 2003.
19. 권미숙. 「차좌일 시의 연구」. 숙명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20. 정민. 「석주 권필의 잡체시 연구」. 한양어문연구. 1986;4.
21. 정은진. 「표암 강세황 한시의 형식과 표현」. 동방한문학. 2008;37.
22. 조태성. 「<요료원야화기> 소재 삽입시의 성격과 기능」. 한국언어문학. 2007;61.
23. 歐天發. 「藥名文學之原理及其形式之發展」. 嘉南學報. 2005;31.

30) 『의학입문』은 많은 부분이 7언시 형태로 되어있고, 약성가 경혈가 등도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31) 퇴계와 남명이 주고받은 편지글(‘발운산과 당귀’, 고전번역원 고전포럼 2010년 5월 3일자)처럼 문학작품 내용에 의학 지식이 녹아있는 경우이다.

24.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DB.  
<<http://jisik.kiom.re.kr>>
25.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26.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http://www.ugyo.net>>
2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2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2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